

일상 파고드는 마약...올해 두달 간 44명 검거

광주·전남 투약·구입 사례 잇따라
20~30대 확산...입수 경로 다양화
경찰, 내달부터 마약범죄 집중단속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서 마약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과 SNS 등의 발달로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통로가 다양해지면서 20~30대를 중심으로 마약 관련 범죄가 크게 늘고 있

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광주·전남지역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은 44명으로, 이중 구속된 마약사범은 7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광주와 전남은 각각 34명, 10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됐다. 연령대별로 광주의 경우 전체 검거 인원 중 20대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 9명, 30대 8명 등 순이었다. 전남은 20대와 50대가 각 3명으로 가장 많으며, 30대 2명, 40대 1명 등 순으로 이어졌다.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광주·전남지역에서 2020년 584명, 2021년 385명, 2022년 585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돼 한 달 평균 43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이달 1일부터 5개월간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집중단속을 시작한 첫날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범이 구속되거나 입건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해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광산경찰서는 거주지에 숨어 각종 환각성분을 혼합한 합성마약 ‘야바’ (YABA)를 태운 연기를 흡입한 불법체류 태국인 4명을 집중단속 첫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다른

범죄를 저질러 자국으로 추방된 동포 태국인으로 부터 마약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이들을 적발한 경찰은 후속 수사에 나서 러시아 국적의 또 다른 마약사범 2명을 검거했다. 러시아 국적의 마약사범들은 고층의 한 섬마을 양식장에서 일하며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광산경찰은 마약에 취해 숙박업소 입구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내국인 마약사범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피의자가 술 냄새는 풍기지 않는데 황실수설하며 이상행동을 보이자 간이 검사를 했고 필로폰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서부경찰은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마약을 구매하려 한 남성 2명을 지난 19일 구속했다. 이들은 판매자 또는 배달부가 주택가 특정 공간에 숨겨둔 필로폰 0.2g을 찾으러 갔다가 개 짖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마약을 봉지째 길바닥에 떨어뜨리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사고판 이들은 철거가 예정돼 인적이 드문 재개발 사업지 주택가를 거러 장소로 선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선 엄중한 처벌과 함께 마약 예방 홍보와 재범방지 교육체계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SNS를 통해 입수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일반인도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됐다”며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유통책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물절약 실천 그림 그리기
세계 물의 날을 앞두고 20일 오전 광주 북구청직장어린이집 원생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물절약 실천과 지구를 사랑 하는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23일 첫 모의고사...광주·전남 7만9천여명 응시

광주·전남지역 학생 7만9,000여명이 오는 23일 실시되는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한다. 20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이번 3월 모의고사는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광주에서는 4만1,054명(1~2학년 54개·3학년 58개 학교), 전남에서는 3만8,221명(1학년 98개·2~3학년 99개 학교) 등 총 7만9,275명이 응시한다. 이번 모의고사는 현 고교3학년 수험생들이 국어와 수학을 통합수능 형태로 치르는 첫 시험이

다. 고3 학생들은 자신의 위치를 가능하고 향후 대입 준비 계획을 설계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입시전문가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어의 경우 언어와 매체, 수학은 미적분 선택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진학사 관계자는 “3월 모의고사에서 얻은 점수와 1, 2학년 학생부 교과 성적을 비교해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의 어떤 전형이 유리한지 중간 점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윤 정부 한일회담, 반역사적 굴욕외교”

광주기독교협회 기자회견

“피해 당사자 자존심 짓밟아”

광주기독교협회의회(광주NCC)가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는 반역사적 굴욕외교라며 한일정상회담 결과 무효를 촉구했다. 광주NCC는 20일 오후 광주 동구 YMCA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친일매국, 반역사적 굴욕외교”라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은 국가의 자존심도, 피해자에 대한 고려도 패권적 굴욕외교의 전형이다”며 “제3자 변제는 우리 기업 돈으로 일본 전범기업이자 피고기업의 채무를 면책해 주는 형태다. 왜 일본의 잘못에 우리 기업이 보상해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강제동원 문제는 여전히 진행중이며 미

래 세대까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장기적 과제다”며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아직까지도 총리가 나서 무릎을 꿇는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정부가 일본을 향해 강제동원 구상권과 관련한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한 점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약속한 점을 규탄하기도 했다. 단체는 “군사정보를 양보하고 향후 (강제동원에 대한) 청구권 행사도 앞장서며 모두 내준 뒤에는 일본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라며 “동해도 일본해로 명칭을 바꿔주고 독도영유권도 차례로 내줄것인지 통탄스럽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정부의 뼈저린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가 해법의 첫 단추”라며 “피해 당사자가 자존심을 망가뜨리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먼저 용서할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찬기 기자

동구, 내일 도시경관 디자인 컨퍼런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오는 22일 ‘동구의 미래를 위한 도시경관, 변화와 지속가능성을 생각하다’는 주제로 ‘동구 도시경관 디자인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동구만의 경관계획 가이드라인 및 설계지침 수립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동구는 이날 회의에서 (사)한국경관학회, 대한

건축사협회 광주시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 도시경관 전문가들의 기초 강연과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배운규 (사)한국경관학회장의 ‘더 나은 삶과 미래 가치로서 경관’을 주제로 한 강연을 시작으로 안장원 (주)이음파트너스 대표의 ‘장소 명소화, 장소 브랜드’, 페드로 페레이라 성균관대 교수의 ‘사례를 통한 유럽의 도시경관정비 사례’ 순으로 주제 발제에 나선다. /김혜린 기자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

-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법지,지분)
-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경매 물건 추천 ◀

북구 용봉동 (상가빌딩) ▶ 감정이 8억9천 → 최저가 6억2천
광산구 하남동 (사무나) 3층 ▶ 감정이 62억 → 최저가 35억
광산구 수완동 (상가 1층) ▶ 감정이 4억 → 최저가 4억
광주 광산구 수완동 (토지) ▶ 감정이 11억 → 최저가 11억
북구 신안동 (6층상가) ▶ 감정이 50억 → 최저가 35억
북구오치동 (주택) ▶ 감정이 2억 → 최저가 1억5천
남구월산동 (주택) ▶ 감정이 1억7천 → 최저가 7천700만

전남 장성군 북이면 (잡종지) 1,991평 ▶ 감정이 4억 → 최저가 4억

전원주택 (1채) → 7,000만

(토지 분양 중) 장성댐5분, 광주 20분, (6m도로접)

- ① 세컨하우스
- ② 소형 주택
- ③ 전기,수도,배수 완비
- ④ 주말 하우스 최고
- ⑤ 잔디,나무,일체 포함

★토지분양 → 전원주택 토지 (100평, 150평, 200평)

상가매매 (상무지구)

▶ 중심 상업지구 (유형적합)

▶ 유흥가능 (전용 100평)

▶ 시세 - 10억

▶ 급매 - 7억 (용4억)

(보3천,월수익 380만)

010-2614-9801

010-6670-9800